"엄마 때문이야!" … 남 탓하는 아이

무슨 일이든 마음에 안 들면 핑계를 대며 다른 사람을 탓하는 아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받아줘야 할지, 따끔하게 혼내야 할지 난감한 엄마를 위한 모범 대처법을 임신·출산·육아 전문지 '앙쥬' (ange.co.kr)가 소개했다.

■ 무조건적인 양육 태도 보이면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아이가 부모의 탓으로 돌리며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의 하나다. 일단 잘잘못을 안다는 측면에서 인지적 발달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 자체도 인지적 책략이 생긴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대개 언어 발달이 어느 정도 이뤄진 만 3~4세 무렵부터 남 탓을 하기 시작한다. 그렇다고 모든 아이가 그런 건 아니다. 개인차가 큰데, 부모의 양육 태도와 평소 모습이 큰 영향을 미친다.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양육 태도를 보이면 아이에게 자신은 절대로 잘못이 없다는 식의 사고 방식을 갖게 할 수 있다.

■ 탓할 때 대화는 이렇게

아이가 갑자기 엄마 탓을 하면 감정이 상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뭘 잘했다고 대들어" 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지나치게 몰아세워선 안 된다.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도 가급적 삼가야 한다. 이렇게 대응하면 서로 누구 탓이냐는 식의 공방전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럴 경우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엄마 탓을 하면서 화내지만, 결국 그것은 네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시켜야 한다. 어떠한 일의 결과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준다. 또한 "그렇게 화내면 기분이 상하니까 마음을 좀 가라앉히자" 하며 아이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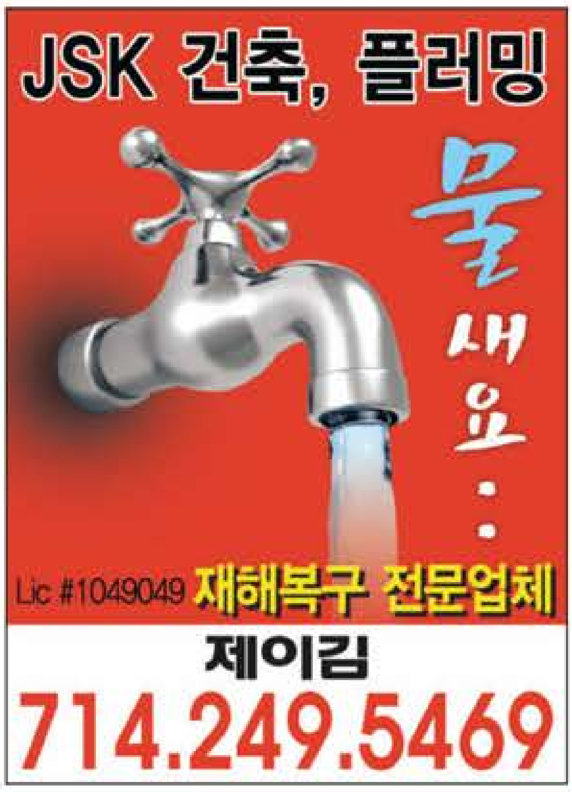
■ 탓하는 습관 고치는 양육 태도

이렇게 말한다고 당장 자신의 잘못과 부주의에 대해 인정하는 아이로 바뀌지는 않는다. 아이에게 지금 당장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바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서서히, 아이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접근해보자. 평소 아이 행동의 결과보다는 과정이나 동기를 중요하게 여겨 아이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 뭐든지 내 탓이라고 자책하는 아이는

부모가 아이에게 칭찬을 많이 하기보다 주로 야단을 치면서 아이에게 반성하는 마음과 태도를 강요해왔다면, 아이는 스스로 '늘 잘못하는 아이' 로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아이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전혀 없어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살피고 거절을 잘하지 못한다. 자기주장 능력이 부족한 아이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사진=shutterstock